

패션비즈니스 제28권 2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8,  
No. 2:64-75, May. 2024  
[https://doi.org/  
10.12940/jfb.2024.28.2.64](https://doi.org/10.12940/jfb.2024.28.2.64)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Kim  
Tel : +82-2-320-1980  
E-mail : jyoungkim@hongik.ac.kr

## Keywords

East Asia, clothing culture,  
Greimas symbol square,  
modern fashion  
동아시아, 복식문화,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현대패션

본 논문은 2023 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동아시아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정인형\* · 김진영+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박사과정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학과, 조교수

## A Case Study of Modern Fashion Design in East Asian Costume Culture -Using the Greimas Symbolic Square

Inhyung Jung\* · Jinyung Kim†

\*Doctoral Course, Dept. of Design and Crafts, Hongik University, Korea,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Hongik University, Korea

## Abstract

Clothing is a powerful medium that reflects the environm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times. It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semiotic analysis, particularly in East Asia. While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are geographically close, they have each developed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ir clothing. These characteristics continue to evolv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odern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se four East Asian countries by using the Greimas symbol square. To achieve this, the paper follows a research method consisting of several steps. First, it considers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Second, it analyzes fashion collections from Paris, Milan, New York, and London, as well as the Seoul and Cruise collections, from 2013 to 2024. Third, it compares costumes and modern fashion designs of brands known for their East Asian influences. Finally, it applies the framework of the Greimas symbol square to analyze the main elements of dress culture in these four countries and their significance in modern fashion collec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East Asian costume culture can be summarized into four distinct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Korea is characterized by "moderation," China by "exaggeration," Japan by "distinctiveness," and Mongolia by "symbolism."

## I. 서론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유한 복식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각국의 복식문화는 당시의 환경과 가치관 등을 상징하는 기호체계로 간주되어 기호학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특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창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4개국의 복식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그레마스 기호학을 통하여 의미작용 관계들의 망을 기술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해석방법을 통하여 동아시아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적 영감의 원천과 문헌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의 복식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둘째, 인터넷 자료 중심으로 2013년~2024년까지 파리(Paris), 밀라노(Milan), 뉴욕(New York), 런던(London) 컬렉션 및 서울(Seoul) 컬렉션 중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의 전통복식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하였다고 밝힌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디자인 사례를 파악한다.

셋째, 둘째 방법에서 수집한 작품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4개국의 전통복식문화의 디자인 및 조형적 특징을 조사하고, 현대 패션에서 추출한 디자인 사례를 조형적 요소인 실루엣,

컬러, 문양, 디테일로 분석한다.

넷째, 동아시아 4개국의 복식문화와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들을 이항대립적 의미로 정리하여 동의성 키워드로 그 의미를 확장한 후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4개국 복식문화의 현대패션 적용 사례를 이항대립과 동위원소 두 개의 대립 범주를 통하여 특성들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은 이항대립을 넘어 주체의 서사적 행로를 심층적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호학적 틀이다. 전통복식문화와 전통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패션의 조형적 차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여 그레마스 기호학적 사각형을 연구의 틀로 활용하였다.

## II. 일반적 고찰

### 1. 동아시아 전통 복식문화

#### 1) 한국

한국 복식의 기본착장은 바지와 저고리로 구성되어있다. 겹옷에 해당하는 포를 착용하며 여성복은 치마 안에 바지를 입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한국 복식의 기원은 가마민족의 저고리, 바지, 치마의 2부 형식 복식이다(Figure 1). 지배계층의 복식 중 일부는 서민의 복식이 되었다. 그 예로 포는 두루마기로 변화하였으며, 만주족의 마개의 영향으로 마고자가 현재까지 널리 착용되고 있다(Figure 2). 배자는 계절에 따라 저고리 위에 옷감을 달리하여 덧입는 옷으로 앞여밈이



Figure 1. *Samhoejang Jeogori and Suran Skirt*  
(Korea Clothes Association, 2003, p.50)



Figure 2. *19th Century Coat*  
(Choi, Jo, Kim, Kim, Park, Ryu, & Shin, 2001, p.121)



Figure 3. *Sa Gyu-sam of the Joseon Dynasty*  
(Choi et al., 2001, p.79)

겹치지 않도록 입었다.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있으며 앞이 뒤보다 길고 끝으로 앞에서 매게 되어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두루마기는 겹옷으로 착용하였다. 여성복 기본 형태의 치마저고리는 계속 유지 되었으나 치마 길이와 폭, 저고리의 길이 등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바지저고리는 서민들에게 노동복이자 평상복으로 사용 실용적인 복장이었으며 귀족들에게는 잠옷이나 속옷으로 사용되었다(Shim, 2017). 사규삼은 조선의 남자 아이가 입는 평상복으로 관례나 돌 등의 행사 예복으로 착용하였다(Figure 3).

## 2) 중국

중국의 복식은 북방 유목민족인 호족과 중원의 농경민족인 한족의 지배세력의 교체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났다. 한족과 호족은 춘추전국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의 복식이 융합되었다. 당나라와 송나라,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가 교체함에 따라 영향을 주어 다양한 양식이 나타났다. 호족의 복식은 2부형식의 짧은 상의와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족은 심의에 기원을 둔 포와 상의 그리고 치마를 착용하였으며, 명대까지 이어져 주변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청나라는 만주족과 한족의 복식이 혼합된 형태의 복식으로 장포(Figure 4)와 마괘(Figure 5)를 착용하였다. 치파오는 청나라 만주족의 여성복에서 유래하였으며 한족 복식의 영향과 20세기 서양 복식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Liu, 2012). 중국의 전통 복식은 전반적으로 정교한 공예와 선명한 색채, 세세한 장식의 특징이 나타난다(Hong, Lee, & Shin, 2011)(Figure 6).

## 3) 일본

북부 대륙의 호복을 기원으로 한 일본의 복식은 관복의 경우 중국의 복식을 따랐으나 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

면서 고유의 복식문화로 발전하였다. 위계에 따라 복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권위를 높이고 신분 간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헤이안 시대는 천황과 조정의 중심인 공가 세력이 약해지고 무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며 복잡하였던 복식이 실용적인 형태로 간소화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무가(武家)가 지배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복식의 형태는 단순화 되었으나 직조기술의 발달로 문양과 조직은 화려해졌다. 에도시대 이후에는 고소테를 기본으로 착용 하였으며 보편적으로 복식을 겹쳐 입었다(Jung, 2004)(Figure 7). 행사예복으로 미혼여성이 착용하는 후리소테와 기혼여성이 착용하는 구로도메소테가 있었다. 구로도메소테는 블랙 바탕색에 옷자락 좌우에 무늬가 있으며 길조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장식하였다(Kim, J. H., Kim, J. Y., & Kweon, S. A., 2010)(Figure 8). 다이쇼 시대에는 기모노에 섬세한 문양과 선명한 색채와 표현에 적합한 소재에 화학염료를 사용하여 유젠염 기법으로 회화적인 일본화 풍경을 그렸다(Lee, 2021)(Figure 9).

## 4) 몽골

몽골은 유목 민족으로 고원의 산과 초원, 사막에서 가축을 방목하며 생활하였으며, 건조한 기후 환경에 적합하도록 복식문화가 발전하였다(Comparative Folklore Society, 2002). 참츠(tsamts)는 상의 내복에 해당하고, 움드(umd)는 하의이다. 델(deel)은 겹옷으로 착용하였다(Figure 10). 델 위에는 테르렉(terleg)과 후렘(khurem)을 겹옷으로 껴입었다(Figure 11). 오지와(uuj)((Figure 12) 한타즈(khantaz)라 불리는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어깨에 걸치는 복식으로는 무루브츠(morovch)와 자하(zakh) 그리고 더딕(dodig)이 있다. 겨울에는 다흐(dakh)와 말르가이(malgai)라고 칭하는 모자, 허리띠 부스(bus), 전통 신발인 고탈(gutal)을 착용한다. 참츠는



Figure 4. Qing Dynasty Emperor Clothing 'Jangpo' (Wang, 2017, p.34)



Figure 5. Qing Dynasty Yellow 'Magwae' (Wang, 2017, p.34)



Figure 6. Chi-pao in the 1930~40s (Zhang, 2012, p.25)



**Figure 7. Junihidoe Edo Period Clothing**  
(Jung, A, P., 2004, p.119)



**Figure 8. Tamesote**  
(Kim, J, H., Kim, J, Y., & Kweon, S, A., 2010, p.133)



**Figure 9. Taisho Period Clothing**  
(Lee, K, H., 2021, p.20)



**Figure 10. JMongolian Soldier Del**  
(Bataa Khulan, 2021, p.31)



**Figure 11. 17th-20th Century Mongolian Del**  
(Bataa Khulan, 2021, p.31)



**Figure 12. 17-20c Halkh Married Woman Oji**  
(Bataa Khulan, 2021, p.32)

상의 의복으로 벨 안에 착용하며 얇고 가벼운 소재로 몸에 밀착이 되어 보온성이 좋다. 칼라는 없는 복장과 스탠드형 칼라가 있으며, 여밈은 교령깃의 무릎진 앞여밈, 비파금 형태의 앞여밈, 중간에서 만나는 맞앞여밈이 있다. 참즈는 단추가 작으며 단추 고리 실베(shilbe)는 짧은 것이 특징이다 (Bataa Khulan, 2021).

## 2. 그레마스 기호사각형과 의미 분석

### 1) 이항대립과 동위성 분석

기호의 의미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구조주의 언어학은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레마스는 표면적 의미, 그 의미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통한 의미 뿐 아니라 내재적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범

위를 넓혀 이론화하였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휘소들의 반복적인 양상을 통하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갖는 것을 동위성이라 하며, 이항대립은 파악된 의미들 중 대립적으로 반복된 양상을 통하여 서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Kim, Lee, & Ryu, 2013). 이항대립은 상징 구조를 형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차이점과 대립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직선과 곡선 등과 같이 대립적 의미의 존재를 통해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 2)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그레마스는 기호사각형은 기호사각형 형태로 동위적으로 확장된 의미들과 이항대립적 관계를 배치하여 의미생성과정과 의미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Kim(2002)에 따르면 두 개씩 짝을 지은 의미관계의 범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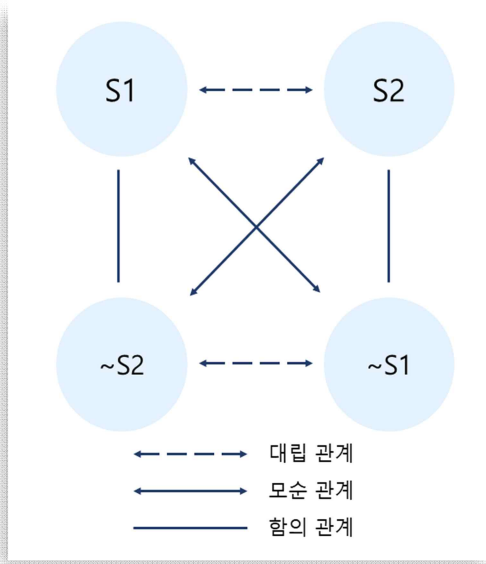


Figure 13.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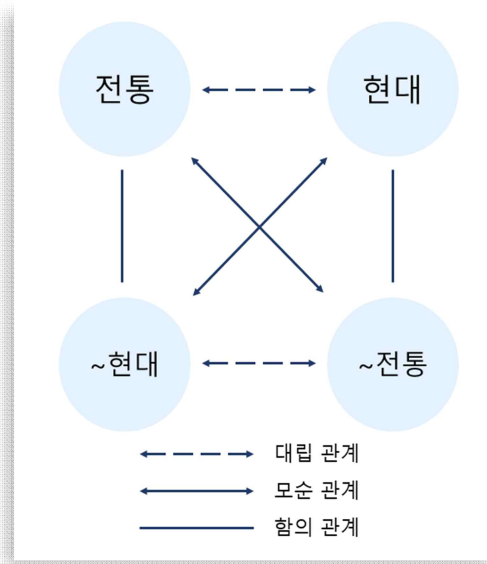


Figure 14. Traditional and Modern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내포와 보완, 대립과 모순의 관계를 갖는다. 'S1, S2'는 '~S1, ~S2'와 반대 관계이고 'S1, ~S1'는 'S2, ~S2'는 모순적 관계를 맺는다. 'S1, ~S2', 'S2, ~S1'는 내포 및 보완적 관계에 있다(Figure 13). 기호사각형을 통하여 해석된 의미는 관찰자에 의하여 인지되는 요소로 의미가 생성되어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패션디자인은 시각적 조형 기호인 색채, 디테일, 아이템, 실루엣 등의 동위성 분석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전통복식과 현대 패션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틀로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사용하였다(Figure 14).

### III. 동아시아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의 기호학적 분석

#### 1.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동아시아 복식문화 사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 복식문화를 살펴보면 Chanel의 2016 Cruise 컬렉션에서는 조각보를 연상시키는 패치워크의 한복 저고리 스타일 상의와 속속곳 스타일 하의를 흰색으로 매치한 후 가재 스타일링을 더하여 한국 복식문화를 현대적

으로 표현하였다(Figure 15). YCH의 2018 S/S에서는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와 한복의 고름과 버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검정색 자켓과 흰색 셔츠 원피스로 디자인하였다(Figure 16). Kimhekim 2020 F/W에서 연핑크 컬러의 두루마기와 한복바지를 연상시키는 조거팬츠를 스포티하게 코디하였다(Figure 17). Minju Kim 2020 Fall 에서는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한복치마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적황색 플라운스 레이어드 상의를 스타일링 하였다(Figure 18). 2024 Gucci Cruise 컬렉션에서는 곡선 배래와 수구를 좁힌 저고리의 소매의 조형적 요소를 살린 시그니처 패턴 상의에 고름 형태의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Figure 19).

Valentino 2015 F/W 컬렉션에서는 검정색 하이웨이트 원피스에 중국 황제 복식인 용포의 특징인 황금색 용의 모티프(Motif)를 배치하였다(Figure 20). 2017 S/S Gucci 컬렉션에서는 대금 여밈의 마패 스타일 재킷을 스트라이프 메탈원단과 매탈사 매듭단추로 재해석 하였으며 연핑크색 실크 플리즈 스커트에 소나무 프린팅을 더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Figure 21). Prada는 2017 S/S 컬렉션에서 치파오 스타일의 입령 칼라와 여밈구조의 아이보리색 상하의 슈트에 비즈와 진주 장식과 소매 및 발목에 깃털로 트리밍을 주었다(Figure 22). J.W.Anderson 2017 F/W에서는 일자금 여밈



**Figure 15.**  
*Chanel Resort 2016*  
(www.vogue.com)



**Figure 16.**  
*YCH SFW SS 2018*  
(www.fashionseoul.com)



**Figure 17.**  
*Kimhekim FW 2020*  
(www.fashionmagazine  
24.com)



**Figure 18.**  
*Minju Kim Seoul Fall 2020*  
(www.vogue.com)



**Figure 19.**  
*Gucci Resort 2024*  
(www.vogue.com)



**Figure 20.**  
*Valentino Fall 2015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1.**  
*Gucci Spring 2017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2.**  
*Prada Spring 2017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3.**  
*JW Anderson Fall 2017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4.**  
*House of Holland Fall  
2019 Ready-To-Wear*  
(www.vogue.com)

에 검정색으로 테를 두른 마감스타일 조끼에 가죽 치마를 레이어드 하였으며(Figure 23), House of Holland 2019 F/W에서는 비파금 여밈의 입령 카라 마감스타일의 누빔 재킷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Figure 24).

Alexander McQueen 2018 F/W 컬렉션에서는 검정색에 큰 장미 패턴을 모티프로 한 긴 기장의 코트에 오비 형태의 리본을 덧 매어 기모노를 형상화 하였다(Figure 25). Prada는 2021 S/S에서 기모노의 기하학적 문양을 곡선 실루엣의 아이보리색 드롭숄더 오버핏 코트에 빨간색 배색 대비로 나타냈다(Figure 26). Kenzo 2022 Fall 컬렉션은 남성 유카타 형태의 깃과 여밈을 재킷으로 재해석 하였다(Figure 27). Onitsuka Tiger 2023 S/S에서는 겹옷을 여러 겹 레이어드 한 착장과 흰색으로 배색을 준 깃, 과장된 길이의 퍼지는 밑단의 기모노의 형태적 특성을 그레이톤의 미니멀한 겹옷과 흰색 셔츠로 표현하였다(Figure 28). Gucci는 2023 S/S

컬렉션에서 남성 기모노 상의의 V넥 라인과 통 넓은 짧은 소매, 매듭단추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메탈릭 골드컬러의 세로 플리즈 원단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였다(Figure 29).

Etro는 2013 F/W 컬렉션에서 몽골의 전통복식인 '텔'의 자수문양 스타일을 활용한 두툼한 벨벳 자카드 소재에 검정색으로 소매와 깃부터 여밈까지 이어지는 테를 두른 재킷을 선보였다. 헤링본 패턴의 트위드 하의는 유목민 생활에 적합하던 전통 하의인 '움드'의 기능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현대 패션의 하의 스타일로 재해석 하였다(Figure 30). Tadashi Shoji는 2020 Fall 컬렉션에서 13~15세기 몽골 제국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퍼와 브로케이드로 장식한 코트에 청록색과 로얄 블루컬러의 비즈로 몽골 전통 기하학적 패턴장식을 더하여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다.(Figure 31). Issey Miyake는 2016 Fall 컬렉션에서 몽골의 말을 타는 유



**Figure 25.**  
*Alexander McQueen Fall 2018 Measwear*  
(www.vogue.com)



**Figure 26.**  
*Prada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7.**  
*Kenzo Fall 2022 Measwear*  
(www.vogue.com)



**Figure 28.**  
*Onitsuka Tiger SS 2023 Ready-To-Wear*  
(www.luxiders.com)



**Figure 29.**  
*Gucci Spring 2023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30.**  
*Etro Fall 2013 Measwear*  
(www.vogue.com)



**Figure 31.**  
*Tadashi Shoji Fall 2020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32.**  
*Issey Miyake Fall 2016 Measwear*  
(www.vogue.com)



**Figure 33.**  
*Raeburn Fall 2016 Measwear*  
(www.vogue.com)



**Figure 34.**  
*Boris Bidjan Saberi Fall 2019 Measwear*  
(www.wwd.com)

목민에게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하였다고 밝혔는데 상의는 '참츠'의 네크라인과 네크라인 요소를 미니멀하게 변형하여 주황식의 상의를 디자인하였으며 하의는 '움드'의 형태적 요소에 기하학적 패치워크 패턴을 더하여 현대패션으로 재해석 하였다(Figure 32). 2016 F/W 컬렉션에서 Raeburn은 몽골의 전통조끼인 '한타즈'의 여밈 구조를 재킷에 활용하였다(Figure 33). Boris Bidjan Saberi는 몽골제국의 군인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2019 Fall 컬렉션을 디자인하였다고 밝혔다. 흰색과 회색의 모노톤 상의에 '텔'의 여밈 구조 외투를 덧입고 오버핏 하의를 착용하였다. 모자와 하네스 등의 액세서리를 더하여 몽골군인의 착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Figure 34).

## 2. 현대패션의 기호학적 분석

동아시아 4개국의 복식문화와,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

션을 대표하는 조형적 특성을 키워드로 추출한 후 이들의 관계를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복식문화에서 나타난 특징은 직선과 곡선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오방색을 자주 활용하였다. 자연문과 기하학 문양에 금박이나 자수로 문양을 넣어 심미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를 표현하였고 수공예를 통하여 화려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식문화를 '화려'라는 키워드로 대표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복식문화의 특징들이 문양이 없거나 브랜드 로고, 단색에 직선 실루엣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한국 전통 복식문화의 '화려'라는 키워드와 현대패션의 '단순'이라는 키워드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여 동위성을 분석하였다(Figure 35). '화려'에 해당하는 의미는 '풍성', '다채'라는 의미로 확장하였으며, '단순'이라는 키워드는 '간결', '심플'이라는 키워드의 동위적 의미로 해석하였다.

중국의 전통 복식은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오방색 색채

에 금박과 자수 등으로 자연문과 기하학 문양과 깃과 여밈의 디테일들이 특징적 요소로 드러났다. 정교한 공예와 세세한 장식은 일정한 형식으로서 '정형'적인 특징으로 대표할 수 있다. '정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칙', '구분'이라는 키워드로 확장하였다. 현대 패션에서는 다양한 실루엣과 소매와 깃에 배색과 실크 및 벨벳, 퍼, 레이스, 비즈 등으로 장식하였고 원피스나 상, 하의 전면에 용과 같은 동물 문양이 크기나 형태에 제한 없이 '비정형'적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은 '불규칙'과 '혼합'적인 의미로 확장하였다. '정형'과 '비정형'은 이항대립적 의미로 각각의 키워드의 동위성으로 확장한 것은 Figure 36과 같다.

일본의 전통 복식문화는 전개형 구조로써 평면적, 직선적이며 좁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사실적인 회화 및 기하학적 문양, 허리의 오비를 강조한 전통 복식 요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직선'적인 특징으로서 '평면', '단일'이라는 키워드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현대 패션에서는 직선적이고 미니멀한 라인과 넉넉한 실루엣 및 소재 등이 모두 나타나는 '선의 혼합'의 특징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동위적 의미를 갖는

키워드는 '입체', '어우러짐'이라는 키워드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전통 복식문화의 '직선'과 현대 패션의 '선의 혼합'이라는 특성의 동위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 확장하고 이항대립적 의미로 정리한 것은 Figure 37과 같다.

몽골은 유목민족의 생활방식이 전통 복식문화에 투영되어 목축 생활로 모피, 가죽, 캐시미어 울 등의 소재와 말을 탈 때 실용적인 트임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실크, 태피터, 자카드, 벨벳, 니트 등 다양한 소재와 장식적인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통 복식문화의 특성은 '기능'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실용'이라는 키워드와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이 실용적이던 옷의 구조와 디테일들이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되었으며 '형태'적이고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요소들의 특성을 '비일상'이라는 의미로 확장하였다. 동위성으로 확장한 키워드는 전통과 현대 패션에서 각각 대립적인 의미를 갖으며 이를 Figure 38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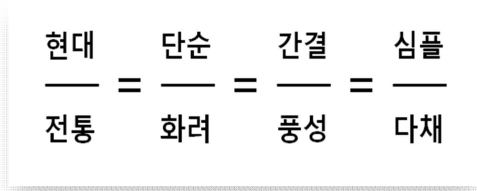


Figure 35. Binary Oppositional Meaning and Equivalence Analysis between Korean Tradition and Modernity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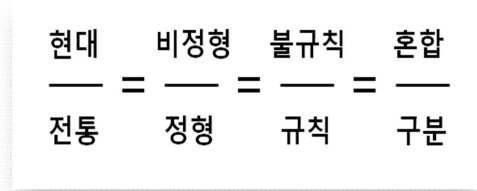


Figure 36. Binary Oppositional Meaning and Equivalence Analysis between Chinese Tradition and Modernity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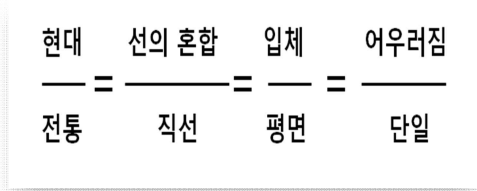


Figure 37. Binary Oppositional Meaning and Equivalence Analysis between Japanese Tradition and Modernity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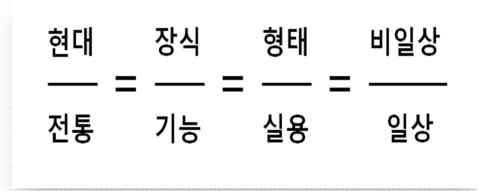


Figure 38. Binary Oppositional Meaning and Equivalence Analysis between Mongolian Tradition and Modernity (taken by authors)



#### IV.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한 동아시아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의 특성

동아시아의 전통 복식문화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특성들을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의성의 키워드로 의미를 확장한 후 전통 복식문화와 현대패션을 대표하는 특징의 키워드를 그레

마스 기호 사각형의 틀에 대입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복식문화 특성을 추출하였다.

한국은 과거의 복식문화에서는 ‘화려’라는 키워드는 ‘단순’이라는 키워드와 대립하며, ‘화려’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확장한 ‘풍성’이라는 키워드는 ‘간결’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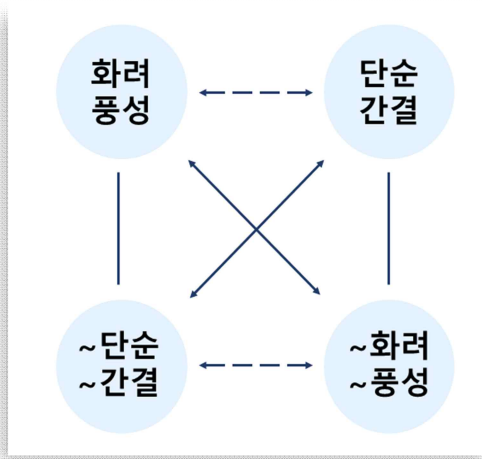


Figure 39. Korean Traditional and Modern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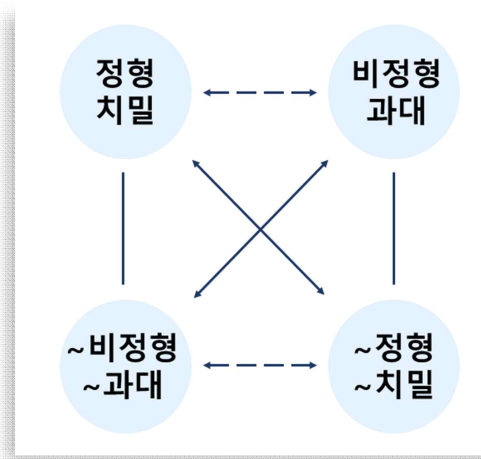


Figure 40. Chinese Traditional and Modern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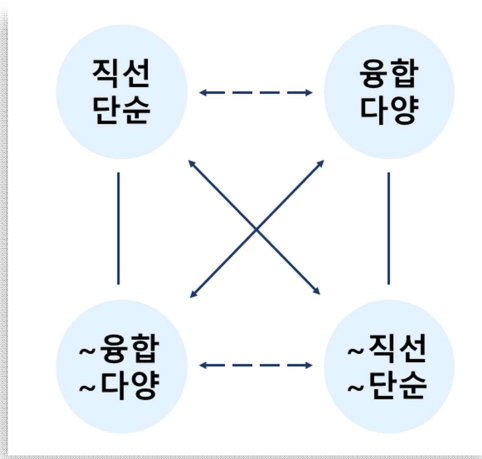


Figure 41. Japan Traditional and Modern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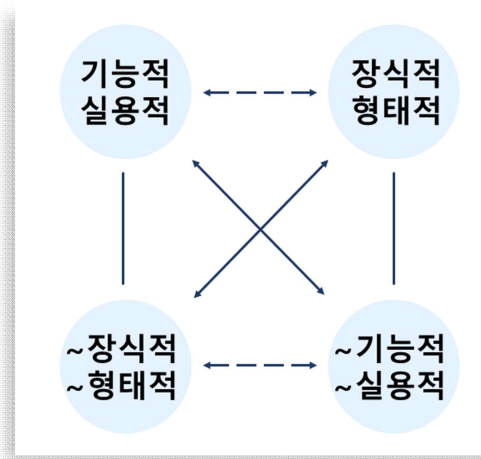


Figure 42. Mongolia's Traditional and Modern Greimas Symbol Square (taken by authors)

다. 전통 복식문화와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을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대입하여 대표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Figure 39). 이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는 한국의 복식문화가 단순하고 간결한 '절제'의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과거의 복식문화에서는 '정형'적이며, '치밀'한 특성들이 나타났으나 현대 패션에서는 이와 대립하는 '비정형'적이고 '과대'한 특성들이 이항대립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표 특성 키워드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대입하여 의미와 관계들을 Figure 40로 정리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의미생성 구조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중국의 복식문화는 '과장'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과거의 복식문화에서 '직선'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며 의미를 확장하여 '단순'이라는 특성이 나타났고, 현대 패션에서는 이항대립적인 의미의 '융합'과 '다양'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대표 특성 키워드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관계도를 통하여 의미생성 구조를 분석하였다(Figure 41). 이 구조도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는 일본의 전통 복식문화가 '입체'적인 특징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전통 복식문화는 '기능적'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며, 동위적 의미를 갖는 '실용적'이라는 키워드로 확장하였다. 현대 패션에서는 이항대립적 의미를 갖는 '장식적'이고 '형태적'이라는 대표 특성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관계도로 정리한 것은 Figure 42와 같다. '기능적', '실용적' 단어는 '장식적', '형태적'이라는 단어와 대립 구조를 이루며 의미생성 구조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몽골의 복식문화적 특성은 '상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속한 4개국의 복식문화가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하여 전통 복식과 현대패션의 각각의 특성들을 동위성과 이항대립적 키워드로 정리한 후 그레마스의 의미생성구조에 따라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하여 그 특성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복식문화는 현대 패션에서 단순하고 간결한 '절제'라는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중국의 복식문화는 현대 패션에서 비정형 적이고 과대하게 표현 되었는데 이는 '과장'적인 특성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복식문화는 현대패션에서 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이 특성은 '입체'라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몽골의 복식은 현대패션에서 실용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장식적이고 형태적인 특성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상징'이라는 키워드로 도출 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하여 전통 복식문화가 나타나 있음에도 현대패션에서 복식문화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모하여 대립적인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각국은 인접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각기 다른 특징들로 정리할 수 있었다. 복식문화는 주변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 복식문화의 디자인적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모하며 독자적인 미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디자인적 영감의 가치를 지닌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통 복식문화와, 복식문화가 나타난 현대 패션의 사례를 통해 추출한 키워드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모델을 사용하여 현대 패션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호학적 틀을 제시하였다. 방법론의 특성상 동위성 키워드 추출시 자의적인 단어 의미의 확장과 이항대립적 의미 구조로 인하여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 분석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기호학적 틀로 동아시아 4개국의 전통 복식문화와 현대패션을 비교 분석 사례가 없다. 본 논문은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연구의 틀로 활용하여 전통 복식문화와 현대패션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동아시아 4개국의 복식문화의 특성을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References

- Alexander McQueen Fall 2018 Mens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April 21,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menswear/alexander-mcqueen/slideshow/collection#30>
- Bataa Khulan. (202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ongolian clothing in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oris Bidjan Saberi Fall 2019 Menswear. (n.d.). [Photograph]. *wwd*, Retrieved March 31, 2024, from <https://wwd.com/fashion-news/shows-reviews/gallery/boris-bidjan-saberi-mens-fall-1202969563/boris-bidjan-saberi-show-fall-winter-2019-paris-fashion-week-mens-france-17-jan-2019>

- Chanel Resort 2016.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rch 13,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16/chanel/slideshow/collection#70>
- Choi, E. S., Jo, H. S., Kim, M. J., Kim, Y. J., Park, M. Y., Ryu, K. J., & Shin, H. S. (2018). *우리 옷 이천년*[2,000 Years of our clothes(5th ed.)]. Goyang, Korea: Misulmunwha Press.
-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2002). *Comparison of Han, Mong folk culture*. Seoul: Minsokwon Press.
- Etro Fall 2013 Mens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rch 22,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menswear/etro/slideshow/collection#52>
- Gucci Spring 2017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y 20,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gucci/slideshow/collection#30>
- Gucci Spring 2023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y 20,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3-Ready-To-Wear/gucci/slideshow/collection#30>
- Gucci Resort 2024.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y 21,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4/gucci/slideshow/collection#5>
- House of Holland Fall 2019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February 09,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house-of-holland/slideshow/collection#25>
- Hong, N. Y., Lee, E. J., & Shin, H. S. (2011). *(韓中日)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The history of East Asian costume]. Paju, Korea: Gyomoonsa.
- Issey Miyake Fall 2016 Mens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y 13,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menswear/issey-miyake/slideshow/collection#21>
- Jung, A. P. (2004). *일본여성복식사*(Japan) History of women's clothing]. (Lee, J. Y., Trans.). Seoul, Korea: Gyeongch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JW Anderson Fall 2017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April 17,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j-w-anderson/slideshow/collection#22>
- Kenzo FALL 2022 Mens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January 08,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menswear/kenzo/slideshow/collection#42>
- Kimhekim FW 2020. (n.d.). [Photograph]. *fashionmagazine24*, Retrieved April 21, 2023, from <https://fashionmagazine24.com/events/kimhekim-fw-2020/>
- Kim, J. E., Lee, J., & Ryu, J. L. (2013). A Study on the generative structure of the Meaning and the binary-*Opposition* in the convergence of fashion design and technology as a emotional method: Focused on fashion design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7), 134-147.
- Kim, J. H., Kim, J. Y., & Kweon, S. A. (2010). A study on Kimono style appeared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2005~2010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6(2), 129-144.
- Kim, S. D. (2002).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From Structure to emotion: studies in Greimas' semiotics and general semantic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Korea Clothes Association. (2003). *500년 조선 왕조 복식* [500 Years of Joseon dynasty clothes]. Seoul, Korea: Misulmunhwa.
- Lee, K. H. (2021).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odern womens costume design: Focused from Meiji era to early showa er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9(1), 15-22.
- Lee, C. H., & Lee, J. H. (2020). The beauty of imperfection: A study of junk art in Viktor&Rolf's haute couture using greimas' semiotic square,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20(3), 147-166.
- Minju Kim Seoul Fall 2020.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May 05,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eoul-fall-2020/minju-kim/slideshow/collection#9>

- Onitsuka Tiger SS 2023 Ready-To-Wear. (n.d.). [Photograph]. *Luxiders*, Retrieved May 21, 2023, from <https://luxiders.com/onitsuka-tiger-spring-summer-2023/>
- Prada Spring 2017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June 31,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44>
- Prada Spring 2021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June 31,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37>
- Raeburn Fall 2016 Mens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February 12,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menswear/christopher-raeburn/slideshow/collection#13>
- Shim, S. B. (2017). *Developing fashion design by comparing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stume of Korea, China,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Tadashi Shoji Fall 2020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April 24,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tadashi-shoji/slideshow/collection#1>
- Valentino Fall 2015 Ready-To-Wear. (n.d.). [Photograph]. *Vogue Runway*, Retrieved June 05, 2023,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valentino/slideshow/collection#60>
- Wang, S. (2017). *A study on the Chinese style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YCH SFW SS 2018. (n.d.). [Photograph]. *fashionseoul*, Retrieved April 09, 2023, from <https://fashionseoul.com/152099>
- Liu, Y. (2012). *A study on Chi-pao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through change process of Chi-pa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Zhang, Y. (2012). *The Chinese style in the Chinese and western designers' collection since 2008: Focus on the influence of Chinese traditional plastic art and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Received (March 22, 2024)

Revised (April 19, 2024)

Accepted (May 23, 2024)

저자 김진영은 현 편집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나 이 논문의 게재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도 보고되지 않았음